

익산 힐링 쉼터로 오세요

‘문화가 있는 숲’ · ‘봉개산 티백 숲’ · ‘북부권 공익숲’ 등 4곳 조성 완료

익산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한 테마가 있는 숲 조성이 완료됐다.

시는 최근 농촌마을 주변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힐링 쉼터를 제공하는 테마가 있는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국비 2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총 4개의 테마로 추진됐다. 조성된 숲은 문화가 있는 숲(합동, 여산, 옹포), ‘봉개산 티백숲(춘포), 북부권 공익숲(합동), ‘산림문화체험 경관숲(옹포) 등이다.

테마별로 살펴보면 합동, 여산 옹포면에 조성된 ‘문화가 있는 숲’은 생활권 주변과 관광지제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는 자작나무, 서

부해당화, 은목서, 동백 등 5,000주가 식재됐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예쁜 단풍이 지는 수종으로 누구라도 공간을 이용하면서 즐거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봉개산 티백 숲은 춘포면 화평마을의 배산(背山)인 봉개산 일원에 조성됐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위치에 숲을 복원하고 휴게시설 설치해 주민들의 휴양공간을 조성했다.

티백(Tree-Back, Bag) 숲은 봉개산이 과거의 울창했던 숲으로 돌아감(Back)과 미래산, 꽃, 즐거움 등을 담아냄(Bag)을 의미한다. 정상부 팔각정을 포함한 편의시설(파고라, 체육시설 등)과 야자매트 산책로 1km 구간 등이 조성됐다.

이와 함께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사라진 빈자리는 함박꽃나무, 애기동백나무 등 6천주를 식재해 아기자기한 꽃나무들로 채워 넣어 주민들의 휴식과 명상 공간으로 조성했다.

북부권 공익 숲은 북부청사 인근 1.5km 구간 중앙분리대 4곳에 화살나무 6천주를 식재해 익산대로 통행 운전자에게 다양한 경관을 제공한다.

‘산림문화체험 경관숲’은 산림문화교육·체험시설 주변에 이팝나무 2백주를 식재해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숲 조성으로 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맑은 공기·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외래동 1층 로비에서는 지난달 30일 윤원하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희망 나눔 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원광대병원, 희망 나눔 트리 점등식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원하) 외래동 1층 로비에서는 지난달 30일 윤원하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환자, 내원객 및 교직원들의 쾌유, 건강, 소망을 기원하는 희망 나눔 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원광대병원 로비에 지리한 희망 나눔 트리에는 소중한 가까운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환자, 내원객 및 교직원들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국, 내외적으로 확산 장기화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빈틈없는 방역과 검사 체계를 가동하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광대병원은 건강 기원 희망 나눔 트리

가 환자, 내원객 및 교직원들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건강한 새해를 꽃 피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희망 나눔 트리에는 소중한 이와 추억의 한 컷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존도 새해 건강과 희망 나눔과 기쁨의 따스한 마음들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열린 마음들이 병들고 힘든 이들에게 전해져 고통은 치유되고 건강하고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음식점·카페’ 특별 방역 점검

익산시, 4800여곳 돌며 코로나19 감염 차단 총력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명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4,800여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이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인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기존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및 1m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 모두 포함된다. 단 분식집,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된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와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인 분식집, 패스트푸드점이 해당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정현을 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 “지금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나운2동, 다중집합시설 손소독제 정비

최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운동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손소독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익산시 나운2동은 최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손소독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를 실시했다.

군산시 나운동은 올해 2월부터 하 나운로 일대 관내 상가 35개소(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걸이(바구니)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교체로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관내 자생단체 및 여성이용소방대로 구성된 마을자키팀이 방역단’을 구성해 강선상가, 예스트 등을 중심으로 소독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8일과 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군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9시 이후 포장배달 등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사업장별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권 나운2동장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청각장애인·외국인 민원접수 창구 운영

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캡을 이용하여 정부 민원안내콜

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외국인을 위한 접수 창구는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43-5300)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또한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 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정신의료기관 5개소 군산시, 비상벨 설치

군산시보건소는 정신의료기관 진료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5개소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 의료진 폭행 및 폭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서에서 열린 정신건강협의회에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군산경찰서,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산시의 정신건강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 설치 지원된 비상경보장치는 응급상황 시 경찰서 112콜센터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경찰서와 통화 가능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불안했던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기자

하림, 토종닭 7000마리 기탁

익산 향토기업인 (주)하림이 1일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방문해 7,000만원 상당의 토종닭 7,000마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토종닭은 하림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으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6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돼 겨울철 보양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길연 대표는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점점 추워지는 날씨 만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맛과 영양이 많은 토종닭 드시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림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